

# 운전재활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인식 조사

##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On Driving Rehabilitation

신중일

춘해보건대학 작업치료과

Joong-II Shin(kanunu@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의 운전재활에 대한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차후 운전재활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부산, 경남 지역의 작업치료사 8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전재활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운전재활에 대한 강의 및 교육은 대부분 받지 않았으며 운전재활을 실시하지 않는 치료사가 62명으로 더 많았다. 학생들 및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들에게 대부분 운전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운전재활과 운전재활 전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작업치료사들이 알고 있었으며 학회 및 세미나와 보수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학생에게 운전재활 교육이 필요하며 임상에서는 운전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운전재활은 환자의 작업수행에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활동 영역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의 재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중심어 : | 운전재활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basic materials for the driving rehabilitation, by analyzing the presence and needs of the driving rehabilita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Occupational therapist. This study analyzed 83 survey questionnaires given to occupational therapist in Busan and Kyoung-nam. Most Occupational therapists does not receive lecture and education of driving rehabilitation, 62 Occupational therapist does not driving rehabilitation intervention. Most Occupational therapist mentioned driving rehabilitation needs. Driving rehabilitation influence on rehabilitation of clients and support activities of daily life.

■ keyword : | Driving Rehabilitation | Occupational Therapist | Occupational Therapy |

## I. 서론

운전은 수많은 인지, 시각, 그리고 지각능력 등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행동으로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이동을 위

한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Instrumental Activity Daily of Living; IADL)이다[1][2].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참여와 독립성, 그리고 이동성을 위해 운전을 한다[3] 경찰청(2004)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접수번호 : #101129-009  
접수일자 : 2010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9일  
교신저자 : 신중일, e-mail : kanunu@naver.com

105,12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수 26,447,737명 중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운전면허소지율은 7.0%로 운전면허소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운전은 장애인의 이동능력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사회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있어 최상의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5][6].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에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자동차운전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고 운전으로의 복귀 역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체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기능을 평가하고 운전훈련을 하는 것은 재활치료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7].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시시각 정보들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각, 인지기능 및 실행능력 등이 필요하다[8].

사고나 노화로 인해서 신체적, 인지적 손상은 받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경우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운전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필요한 경우 운전으로의 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재활을 받아야 한다.

운전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운전평가와 교육을 제공한다. 운전경험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면허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가와 교육이 이루어지며 노인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벤의 개조를 포함한다[9].

운전재활프로그램은 운전 전 평가, 주행훈련,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며 운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평가하고 훈련하며 장애인운전자 개인을 위한 보조기의 이용과 보상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10].

운전 전 평가에는 환자와의 초기인터뷰(병력, 가족력, 사회력 등), 훈련기간 동안 사용될 환자의 '운전자기능 훈련평가지'준비, 환자의 운전기록 조사(사고, 법규위반 사항)가 포함된다. 이러한 검사들이 끝나면 3차원 운전 시뮬레이션(driving simulator)을 사용해서 모의 운전

검사를 실시하고, 운전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발급에 있어서 환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상담을 한다 [11]. 주행훈련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지며 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주행 중 행동훈련, 시내 주행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진다. 모든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료증을 받게 되고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11][12]. 보고서에는 기본적인 평가와 검사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운전재활을 위한 차량개조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운전재활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다.

작업치료사는 적절한 판별검사와 운전평가와 재활을 통해서 운전재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3]. 또한 장애인 운전자 재활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작업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작업치료사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운전자재활이 작업치료의 중요한 영역임을 입증하고 있다[9][14][15-17]. 미국의 경우 1995년 기준으로 작업치료사가 운전자재활전문가의 6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작업치료의 전문분야로 여겨지고 있지만[9][12],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운전재활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의 운전 재활에 대한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차후 운전재활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작업치료사 83명을 대상으로 운전재활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장문영 등[18]과 강대혁 [9]의 논문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박사과정 작업

치료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한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문항들은 운전재활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하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1-25세 28명(33.7%), 26-30세 43명(51.8%), 31-35세 8명(9.7%), 36-40세 4명(4.8%)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57명(66.3%)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인 29명(34.9%), 3년 이상-5년 미만(22.9%), 1년 미만(18%), 5년 이상-10년 미만 17명(20.5%)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서는 학사가 54명(65.0%), 전문학사 21명(25.3%), 석사 8명(9.7%) 순이었다. 근무기관의 형태는 재활병원 42명(50.6%), 종합병원 19명(22.9%), 요양병원 13명(15.7%), 복지관 6명(7.2%), 기타 3명(3.6%) 순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 원	퍼센트
나이	21- 25세	28	33.7
	26- 30세	43	51.8
	31- 35세	8	9.7
	36- 40세	4	4.8
	41세 이상	0	0.0
성별	남	26	31.3
	여	57	68.7
임상경력	1년 미만	18	21.7
	1년 이상-3년 미만	29	34.9
	3년 이상-5년 미만	19	22.9
	5년 이상-10년 미만	17	20.5
	10년 이상	0	0.0
최종학력	전문학사	21	25.3
	학사	54	65.0
	석사	8	9.7
	박사	0	0.0

근무기관	종합병원	19	22.9
	재활병원	42	50.6
	요양병원	13	15.7
	복지관	6	7.2
	기타	3	3.6

2. 운전재활 교육현황

학교에서 운전재활을 강의 교과목으로 수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3명(100.0%)이 수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에서 보수교육 등을 통한 운전재활 교육 이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4명(41.0%)이 이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교육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는 운전재활에 대한 개요 26명(76.5%), 운전평가 7명(20.6%), 차량개조가 1명(2.9%)이었다[표 2].

표 2. 운전재활 교육 현황

구 분		인 원	퍼센트
학교에서 운전재활 강의수강 여부	있다	0	0.0
	없다	83	100.0
임상에서 운전재활 교육이수 여부	있다	34	41.0
	없다	49	59.0
교육 종류	운전재활전문가	0	0.0
	운전재활 개요	26	76.5
	운전평가	7	20.6
	차량개조	1	2.9

3. 운전재활 실시현황

운전재활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임상에서 운전재활의 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다는 응답이 21명(25.3%), 안 한다는 응답이 62명(74.7%)으로 하지 않는 병원이 더 많았다. 운전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전재활의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21명(25.3%)이 차량 이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운전재활이 필요한 환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한 환자가 없다 48명(57.8%), 필요한 환자가 있다 35명(42.2%)이었다. 운전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척수손상환자 26명(31.3%), 기타 4명(4.8%), 노인성질환 환자 3명(4.8%), 뇌손상 환자 1명(1.2%), 퇴행성질환 환자 1명(1.2%) 순이었다[표 3].

표 3. 운전재활 실시 현황

구 분		인 원	퍼센트
운전재활 실시 여부	한다	21	25.3
	안 한다	62	74.7
운전재활 실시영역	차량 이동	21	25.3
	모의운전	0	0.0
	모의주행	0	0.0
	보조 도구	0	0.0
	운전 수행	0	0.0
운전재활이 필요한 환자여부	있다	35	42.2
	없다	48	57.8
운전재활이 필요한 환자군	뇌손상 환자	1	1.2
	척추손상 환자	26	31.3
	퇴행성질환 환자	1	1.2
	노인성질환 환자	3	3.6
	기타	4	4.8

4. 운전재활에 대한 인식

운전재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전재활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7명(8.5%), 알고 있다 31명(37.3%), 보통이다 29명(34.9%), 잘 모른다 15명(18.1%), 전혀 모른다 15명(18.1%)로 운전재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16명이었다. 운전재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학회 및 세미나 37명(44.6%), 보수교육 22명(26.5%), 학교 13명(15.7%), 논문 6명(7.2%), 기타 5명(6.0%) 순이었다. 운전재활 전문가과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 57명(68.7%), 들어본 적이 없다 26명(31.3%)이었다. 학생들의 운전재활 교육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23명(27.7%), 필요하다 32명(38.6%), 보통이다 18명(21.7%), 필요없다 8명(9.6%), 전혀 필요 없다 2명(2.4%) 순이었다. 임상에서 운전재활의 필요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필요하다 47명(56.6%), 필요하다 25명(30.1%), 보통이다 11명(13.3%)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6.7%를 차지하였다. 운전재활이 환자의 재활에 미치는 중요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7.1%가 운전재활이 환자의 재활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운전재활이 작업수행에 미치는 도움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작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 74명(89.2%), 도움이 되지 않는다 9명

(10.8%)이었다. 운전재활이 가장 도움을 주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일상생활활동이 47명(63.5%)이었으며, 사회참여 18명(24.3%), 여가 7명(9.5%), 일 2명(2.7%)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운전재활에 대한 인식

구 분		인 원	퍼센트
운전재활에 대한 사전지식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7	8.5
	알고 있다	31	37.3
	보통이다	29	34.9
	잘 모른다	15	18.1
	전혀 모른다	1	1.2
운전재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	학회/ 세미나	37	44.6
	보수교육	22	26.5
	학교	13	15.7
	논문	6	7.2
	기타	5	6.0
운전재활전문가에 대해 들어본 경험	있다	57	68.7
	없다	26	31.3
학생들의 운전재활교육 필요여부	매우 필요하다	23	27.7
	필요하다	32	38.6
	보통이다	18	21.7
	필요 없다	8	9.6
	전혀 필요 없다	2	2.4
임상에서 운전재활의 필요여부	매우 필요하다	47	56.6
	필요하다	25	30.1
	보통이다	11	13.3
	필요 없다	0	0.0
	전혀 필요 없다	0	0.0
운전재활이 환자의 재활에 미치는 중요정도	매우 중요하다	37	44.6
	중요하다	27	32.5
	보통이다	10	12.1
	중요하지 않다	9	10.8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작업수행에 대한 도움여부	예	74	89.2
	아니오	9	10.8
운전재활이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	일상생활활동	47	56.6
	사회참여	27	32.5
	여가	7	8.5
	일	2	2.4
	교육	0	0.0

IV. 고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운전재활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차후 운전재활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83명의 부산, 경남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로서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학교에서 운전재활을 강의 교과목으로 수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3명(100.0%)이 이전에 강의 교과목으로 운전재활을 수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에서 보수교육 등을 통한 운전재활 교육 이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4명(41.0%)이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는 운전재활에 대한 개요가 26명(7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운전재활에 대한 강의교과목도 없고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임상에서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만 개괄적인 내용들이 교육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상에서 운전재활의 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안 한다는 응답이 62명(74.7%)로 하지 않는 병원이 더 많았다. 실시하고 있는 운전재활의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21명(25.3%)이 차량이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학교 및 임상에서의 교육부재로 인해 임상에서 운전재활이 실시되지 않는 곳이 많고 실시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동 훈련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orner-Bitensky 등[19]이 운전재활에서 실제적인 운전기술을 훈련시키고 차량 개조 등을 제공한다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회 및 세미나 혹은 보수교육 등은 통해서 운전재활과 운전재활전문가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작업치료사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작업치료사들도 많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전재활에 대한 교육들이 개괄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작업치료사들이 운전재활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운전재활 교육은 55명(66.3%)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72명(86.7%)이 임상에서 운전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운전재활이 환자들의 재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작업수행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일상생활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재활이 환자의 재활에 미치는 중요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64명(77.1%)이 운전재활이 환자의 재활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자가운전자의 일상생활활동 점수가 더 높다는 김수일 등[2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운전재활이 환자의 작업수행 및 일상생활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환자의 재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의 결과 운전재활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결과는 현재 임상에서 운전재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포괄적인 운전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작업치료사는 운전재활에서 운전재활전문가로서 환자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실시한다. 환자의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기능 등을 평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가 운전재활전문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혁[9]의 논문에서도 운전재활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작업치료사협회[21]에서는 운전을 작업치료사가 평가하고 훈련해야 하는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5년을 기준으로 작업치료사가 운전재활전문가의 62%를 차지하고 있다[12].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재활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치료를 배우는 학생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상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작업치료사들에게 운전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작업치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제도 등 운전재활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 경남 지역의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구지역의 제한성으로 전체 작업치료사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재활에 대한 연구논문이 많지 않아서 선행연구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운전재활에 대한 현황 및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차후 운전재활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 작업치료사들은 학교에서는 운전재활에 대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임상에서 교육을 들은 경우 운전재활의 개요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임상에서 운전재활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행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들은 모두 car transfer를 하고 있었다. 운전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척수손상환자들이 가장 많았다.

운전재활과 운전재활 전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작업치료사들이 알고 있었으며 학회 및 세미나와 보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학생에게 운전재활 교육이 필요하며 임상에서는 운전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운전재활은 환자의 작업수행에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활동 영역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의 재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차후 운전재활을 임상에서 적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운전재활 실태와 평가 및 운전면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P. S. Hu, and J. R. Young, *Summary of trends: 1995 Nationwide Personal Transportation Survey*, 1995.
- [2] R. Fuller, "Towards a general theory of driver behaviour," *Accid Anal Prev*, Vol.37, No.3, pp.461-472, 2005.
- [3] A. B. Cranney, A. Harrison, L. Ruhland, C. Vaidyanath, I. Graham, M. Man-Son-Hing, J. Jaffey, T. E. Towheed, T. P. Anastassiades, and I. I. Dwosh, "Driving problems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Journal of Rheumatology*, Vol.32, No.12, pp.2337-2342, 2005.
- [4] 경찰청, *도로교통안전백서*, 경찰청, 2004.
- [5] C. A. Trombly,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 2nd ed*, Williams and Wilkins, 1983.
- [6] J. M. Hofkosh, J. Sipajlo, and L. Brody, "Driver education for the physical disabled: Evaluation, selection, and training methods," *Med Clin N Am*, Vol.53, No.3, pp.685-689, 1969.
- [7] B. L. Mazer, N. A. Korner-Bitensky, and S. Sofer, "Predicting ability to drive after stroke," *Arch Phys Med Rehabil*, Vol.79, No.7, pp.743-775, 1998.
- [8] 허안나, 박시운, 이범석, 신오수, 이은선, 나인수, 김병식, "Cognitive Behavioral Driver's Inventory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운전능력평가," *대한재활의학회지*, 제27권, 제1호, pp.7-12, 2003.
- [9] 강대혁, "신체장애인 운전자재활에 있어서 작업치료사의 역할,"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35-142, 2003.
- [10] D. French, and C. S. Hanson, "Survey of driver rehabilitation programs," *Am J Occup Ther*, Vol.53, No.4, pp.394-397, 1999.
- [11] <http://www.va.gov/publ/direc/health/proggde/1173-2g.html>
- [12] S. Fenton, W. Kraft, and E. Marks, *Willard and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JB Lippincott, 2003.
- [13] S. Classen, O. Shechtman, K. D. Awadzi, Y. Joo, and D. N. Lanford, "Traffic violations versus driving errors of older adults: Informing clinical practice," *Am J Occup Ther*, Vol.64, No.2, pp.233-241, 2010.
- [14] M. Gourley, "Driver rehabilitation: a growing practice area for OTs," *OT Practice*, Vol.7, No.6, pp.15-20, 2002.
- [15] P. Klavora, P. Gaskovski, K. Martin, R. D. Forsyth, R. J. Heslegrave, M. Young, and R. P. Quinn, "The effects of Dynavision rehabilitation on behind-the-wheel driving

ability and selected psychomotor abilities of persons after stroke," Am J Occup Ther, Vol.49, No.6, pp.534-542, 1995.

[16] H. C. Lee, A. H. Lee, and D. Cameron, "Validation of a driving simulator by easuring the visual attention skill of older adult drivers," Am J Occup Ther, Vol.57, No.3, pp.324-328, 2003.

[17] C. J. Wheatley, "Shifting into drive: evaluating potential drivers with disabilities," OT Practice. Vol.6, No.13, pp.12-15, 2001.

[18] 장문영, 권혁철, 김경미, 안덕현, "작업치료사들의 재활보조공학에 대한 교육 배경 및 인식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05-115, 2007.

[19] N. Korner-Bitensky, A. Menon, C. von Zweck, and K. Van Benthem, "Occupational therapists' capacity-building needs related to older driver screen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 Canadawide survey," Am J Occup Ther, Vol.64, No.2, pp.316-324, 2010.

[20] 김수일, 김덕용, 나은우, 배하석, "척수 손상 장애인의 자가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재활의학회지, 제26권, 제6호, pp.709-716, 2002.

[21]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Am J Occup Ther, Vol.56, No.6, pp.609-639, 2002.

저 자 소 개

신 중 일(Joong-Il Shin)

정회원



- 2007년 2월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사)
  - 2009년 2월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석사)
  - 2010년 2월 ~ 현재 : 인제대학교 재활과학과 박사과정
  - 2008년 7월 ~ 2011년 3월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2011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 작업치료과
- <관심분야> : 작업치료, 재활의학, 운전재활